

# 서 평 지

서평 제목	오라, 우연이여!	참가번호	2023-34
도 서 명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확 인	기재하지 마세요

※ 서평지 2매, 글자수 1,500자 이상(공백제외) 작성  
 ※ 함초롱바탕, 폰트크기(11pt), 줄간격(160%)

토마스의 삶은 얼핏 보면 실패한 것 같다. 병원장 자리를 물려받을 의사에서 시골의 트럭 운전사로 전락했으니 말이다. 나는 ‘낭만 어부’ 생각이 났다. ‘다큐 3일’에서 촬영한 이 회차는 15년에 방영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찾는다. 고석길 선장에게 제작진이 “선장님은 어릴 적 꿈이 뭐였어요?” 하고 묻자, 선장님은 설명하기 힘든 한숨을 내신다. 그 한숨을 표현하려면 그저 우는 수밖에 없다. “왜 또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십니까, 제게도 꿈은 있었습니다. 난 있잖아,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어요.” 선장님은 이 말 뒤에 「낙화」와 「사모」를 이어 읊는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선장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구절은 내 가슴에 꽂혔다.

내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내 꿈이 모두 실패하고 말년에 하는 일이 문어잡이라면, 나는 내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하며 우울함에 빠져 있을 것이 뻔하다. 그래서 나는 너무 알고 싶었다. 선장님의 말과 행동은 결코 체념이 아니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지, 나는 너무 나도 깊은 인상과 감동을 받았고, 그 요소를 반드시 알아야만 했다.

내가 알고 지내는 선생님은 내 질문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건 그 선장이 국문학과를 가고 싶었던 그 끌림을 배 위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이 평생 찾고자 했던 무언가를 문어를 잡으며 찾았기 때문이라고. “살다 보면 다 하나로 통해”.

이번 학기에 듣는 ‘미학의 이해’라는 수업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대부분의 철학자가 죽기 직전에 가서 쓰는 책은 미학과 관련된 책이다. 철학은 무언가를 규정하는 학문이다. 어떤 개념을 정의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개념에 맞게 정리한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정해져 있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젊었을 때는 열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정의하고 분류하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야말로, 계획대로 되는 게 없는 이 우발적인 일들이야말로 결국에는 아름다움이다.

토마스와 테레사는 6번의 우연을 통해 만났고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그 우연이 두 사람에게만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우연을 맞이한다. 당장 지하철을 타면 나는 수백의 사람을 우연히 만난다. 기껏해야 발이나 밟힐 뿐 내가 그들 중 하나와 매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는. 꼬냑, 책, 베토벤, 6호실, 노란 벤치가 그저 일상으로 머물지 않고 두 사람 앞으로 튀어나온 데에는 분명히 다른 요소가 존재했다.

‘모티프’는 평생에 걸쳐 만들어지는 삶의 결이다. 우연은 두 사람을 같은 날,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장소에 몰아넣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겪는 일이다. 그러나 토마스의 등장은 테레사의 모티프를, 테레사는 토마스의 모티프를 건드렸다. 둘은 서로에게 이끌렸다. 우연은 모티프가 공명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

서평 제목	오라, 우연이여!	참가번호	2023-34
<p>이 소설의 등장인물, 토마스, 테레사, 사비나, 프란츠, 토마스의 아들은 모두 각자의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각자의 모티프를 따라 살게 된다. 계속해서 해부하는 토마스, 시골로 이사하는 테레사, 미국으로 이주한 사비나, 행진에 참가하고 남자들에게 저항하는 프란츠, 계속해서 편지를 부치는 토마스의 아들. 스스로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그들의 결말은 전부 모티프로 되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처음 모티프가 출발했을 때와는 달리, 해소된 상태로 모티프에 도달했다.</p> <p>우연은 모티프를 이어준다. 그래서 공명할 수 있게 해주고, 삶의 결을 이어주고, 의미를 만든다.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처럼 그저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가는 우연도 있는가 하면 나를 끔찍이 괴롭히는 우연도 있다. 철저하게 준비했지만 전혀 뜬금없는 문제가 갑자기 터져 물거품이 된다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흐름에 휩싸여 떠내려간다거나, 아니면 그저 무슨 일이 자꾸 생기거나.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런 우연들에 휩싸일 하루를 두려워했다.</p> <p>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상처받고 힘들 걸 알면서도 스스로 문을 열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지금도 나를 미치게 만든다. 오늘 하루는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에서 점점 다 그만두고 싶은 심정으로 변해갔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너무 무서우니까, 다 때려치우고 이불만 뒤집어쓰고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다.</p> <p>삶의 결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연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선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철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 보면 나는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p> <p>우연은 한 모티프를 다른 우연이 지닌 모티프와 충돌시킨다. 설명할 수 없는 인력에 이끌려 모티프를 알아보고 삶의 결이 일치하는 것들끼리의 만남을 주선한다. '번쩍'하고 스파크가 튼 이 만남은 다시 서로를 서로의 모티프들로 돌려보낸다. 다만 도달하는 그 종착점은 분명히 예전과는 다르다. 나의 삶도 그럴 것이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은 진동하고 있다. 우연은 이 진동을 결이 맞는 다른 모티프와 만나게 해줄 것이고 결국 공명하게 될 것이다.</p> <p>이 소설은 읽는 내내 내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다. 계속해서 부딪혀야 한다는 의무, 우연을 삶의 동반자로 받아들이라는 의무. 동시에 내게 위로의 말도 건넨다. 희망이다. 나는 여전히 무섭다. 심장이 아플 정도로 빨리 뛰다. 과호흡 증세도 조금 있다. 그러나 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환영하며 반길 수는 없더라도, 조금의 용기를 내보려 한다. 그 힘든 일과 함께 가겠다는, 삶의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가겠다는 용기 말이다. 도망치고 숨는다면 아무런 우연도 등장하지 않을 테니. 그러므로 나는 떨고 있는 와중에 내 가슴을 활짝 열고 배짱 좋게 외친다: 우연이여, 내게로 오라!</p>			